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지난 호의 프랑스 에이즈예방 인쇄매체 광고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유럽의 TV광고 3편을 소개하기로 한다. 3편 모두 흑백동영상으로 일단 컬러를들과의 차별화에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에이즈예방이라는 공익의 목적을 잘 표현하고 있다.

글 최두현 · 프리랜서 카피라이터

뭔가를 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것 - 콘돔



광고1) 광고대행사-Seilor DDB, 스위스 / Stop AIDS "매듭"편

으젯동안 사귀었던 그녀와 헤어져 본 적이 있는가. 힌동 안은 거리를 걸을 때누, 노래를 들을 때누 은통 그녀와 함께 한 주어들어 이 별의 아픔을 더욱 깊게 할 것이다.

이 처럼 '뭔가를 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그 무엇'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

광고1)은 바로 이런 '심리적 기억의 머뭇'을 광고에 도입하였다. 해변가에 한 쌍의 남녀가 서로 껴안고 키스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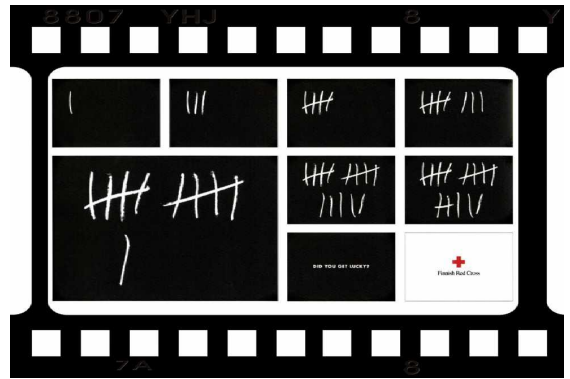
며 어부하고 있다. 잇들이 하나 두 벗겨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고소된다. 여사가 남사의 팬티를 끌어 내리는 순간, 아 니 이게 웬일? 남사의 심기가 머뭇처럼 무여 있다. 그 위에 자막이 들어와 박힌다. STOP AIDS! 이 색시힌 커머셜은 '성기 매듭'이라는 기상천외한 상징을 뽐내며, 남녀가 그 무엇을 할 땐 언제 어디서나 항상 콘돔을 착용하라는 것은 무언의 강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심플한 화면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

새까만 화면에 로맨틱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사실로 부는 이늘의 두 귀와 눈을 새까만 화면 앞으로 끈어당기게 한다.)

치졸 루위기가 고조되면서 여러 명의 여사들과 섹스를 하는 남자의 분능적인 숨소리, 이사늘의 고성이 귀를 어지럽힌다. 섹스 파트너가 바뀔 때마다 까만 화면에 튜플로 막대가 하나씩 그려진다. 수직으로 네 개가 그려지면 수평으로 하나가 그어져 다섯 개의 H 모양이 완성된다. 두 모양이 그려지자, 이번에는 다섯 개의 막대가 수직으로 그려진다. 순간, 막대 하나가 옆으로 그어지면서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AIDS 바오 리스)라는 글자가 만들어진다. 이때 "당신은 우이 좋았시요?"라는 멘트가 들려온다.

광고2)는 성생활이 난립한(?) 당신이 아직 에이스에 걸리



광고1) 광고대행사-Santala BWA / 핀란드 적십자 "행운"편

시 않은 것은 단지 눈에 시나지 않는다. 하지만 에이스에 관한 한 어디든 행운을 기대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슈임하게 부짚는다. 그들의 성생활이 이제 많이 거저했졌을라나?

검은 아프리카를 에이즈에서 구하자



광고3) 광고대행사-TBWA, Paris / 프랑스 에이즈 예방협회 "마을"편

광고3)은 에이즈로 농장을 잃고 있는 아프리카를 에이즈로부터 구하라는 뜻을 유럽인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의 광고이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 입구, 늙고 있던 아이늘이 갑자기 하던 일을 모두 팽개치고 기겁을 하며 달아난다. 마을에 도착하여 그늘이 본 것을 말하자 마을은 금방 일대 혼란에 빠진다. 곡식을 마당에 그냥 내버려둘 채 어린이가 끈어안고 황급히 집으로 뛰어가는 아낙네들, 다음 사람 모두가 집안으로 숨어간다. 마을을 걸어 잠그는 그늘의 표정에는 두려움의 빛이 역력하다.

이윽고 늙고 구부정한 모습의 한 노인이 마을로 들어서

다. 왜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신스런 모습이다. 화면 가득 그의 얼굴이 근로스업 되면서 사막이 나온다.

아프리카의 평균예상수명은 47세에 불과합니다.

머지않아 노인의 모습이 어떠한지조차 모르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에이즈로부터 포기하지 맙시다, AIDS.

마을사람들이 보고 놀란 것은 괴복도 에이즈에 걸린 폐인도 아닌,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다는 극적반전을 통하여 씩씩한 모습과 더불어 아프리카의 에이즈 문제를 다시금 곱씹게 하는 후편의 드라마틱 같은 감동을 주는 광고이다.